

대만 25년만에 7.4 강진...최소 9명 사망·800여명 부상

화롄 남동쪽 12km 거리서 발생...3~4일 규모 6.5~7.0 여진 가능성
일본 오키나와·필리핀 해안 쓰나미 경보 발령 후 큰 피해없이 해제
당국 "완전 파손 2채 등 건물 120여채도 파손...간헐 77명 구조 중"

3일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이날 오후 6시 현재 최소 9명이 숨지고 821명이 다쳤으며 127명이 고립됐다고 현지 언론이 대만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아침 하이킹에 나섰다 바위에 깔려 변을 당했다고 다른 한 명은 산사태에 매몰된 트럭 운전사였다.

당국에 따르면 완전히 무너진 최소 2채를 비롯해 지진에 파손된 건물이 125채에 달한다.

현재 구조 당국은 갇혀있는 77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화롄시 당국은 건물 잔해 아래에서 50여 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도시 화롄에서는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7.4(유럽지중해지진센터 및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영향으로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해안 지역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나 큰 피해 없이 해제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관광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20km로 관측됐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은 총 25차례를 넘었다.

일본 기상 당국은 규모를 당초 7.5에서 7.7로 상향했고 중국은 7.3으로 관측했다.

대만 당국은 규모가 7.2라면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약 2400명이 숨지고 건물 5만채가 파손된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진앙이 육지와 상당히 가까운 얕은 층이어서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을 느껴졌다고 밝혔다.

우 센터장은 앞으로 3~4일간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소방 당국은 지진으로 진앙과 가까운 화롄 지역에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97명에 달했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건물 최소 26채에 갇혀있는 약 20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3일 대만 동부를 강타한 규모 7.4 강진으로 화롄 지역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있다.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이날 강진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바이든·시진핑 통화...기대 컸지만 견해차만 확인

'경제 회생 전력' 中 시진핑...대선 전 '안정적 中 관리' 美 바이든
대만·남중국해 '이견'...美재무·국무 방중 '전략경쟁 관리' 가늠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전화 통화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있지만, 현안 견해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 회생에 급한 시 주석과 연 말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중국 관리'가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대만·디리스크(de-risking·위험 제거)·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물론 중국의 일방적 '러시아 편들기'가 난제로 꼽힌다.

우선 중국 당국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1시간 45분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필요가 더 컸다는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보이나,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냉기류에 이어 작년 초 '정찰 풍선' 사건으로 미중 갈등과 대립이

증폭됐던 상황에서 미국은 블링컨 장관 방중(6월), 옐런 장관 방중(7월)에 이어 시 주석을 초청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11월)을 하는 등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지만 현안 논의와 관련해서 미국은 공세, 중국은 수세였다는데서도 기류가 읽힌다.

디리스크가 단적인 사례다. 미국이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제품은 물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디리스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승리를 꾀고 있다. 이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이 중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건설이라는 기존 발전 방식의 한계에 봉착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과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미국의 디리스크 봉쇄를 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시진핑

신화통신은 "중미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고, 백악관은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선진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디리스크 정책의 지속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시 주석이 강하게 반발한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으

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이견은 분명했다.

최근 중국-필리핀의 잦은 충돌로 핫이슈가 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 수호 의지를 역설한 데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번 통화는 주요 2개국(G2)인 미·중 양국 간 '의미 있는' 관계 안정화 노력이자 '책임 있는' 위기관리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중국·북한 중심의 냉전적 대립 구도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G2 정상 간 소통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냉전'과 중국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충돌과 대결을 불원하며 신중한 이견 관리로 존중하고 소통하자는 걸 핵심으로 한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차이점은 그대로 두다)를 역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미 현지시간으로 3~9일 예정된 옐런 미 재무장관과 수주 내로 예정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G2간 전략 경쟁 관리가 향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를 엿볼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구호트럭 폭격 네타냐후 총리, 오폭 인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국제 구호단체 차량 폭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별도의 백악관 성명을 통해 "어제 가자지구에서 미국인 1명을 포함해 (국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킴킨(WCK) 소속 직원 7명이 사망한 것에 격분한 상태이며 비통하다"며 말했다.

이어 "훨씬 더 비극적인 점은 이번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번 전쟁은 구호요원들이 얼마나 많이 숨졌느냐는 점으로 따져볼 때 최근 기억에서는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스라엘이 민간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구호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습 발생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폭을 인정하고 재발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